정의란 무엇인가 - 독후 감상문

32154887 하O기

정의라 함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이다. 적어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진 말이다. 나는 예전에도 이 책을 읽었고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정의라는 것을 인간이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그만큼 각박해진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다. 정의가 경제적 이득이 되며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정의를 추구해야만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철학적 사유를 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적 쾌감과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고대에는 귀족들이 철학을 공부하였지만 현재는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중에도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언어의 보편화로 아무래도 철학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당연히 고대와 현대의 상황은 다르며 시시각각마다 정세가 뒤바뀌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정의만을 추구하지 않고 경제 시스템에 한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답은 없고 왜 그렇게 될까 라는 질문과 수많은 예시를 들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정의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란 게 있어서 누가 옳다 그르다 라는 확정적 선택은 어렵고 정치적 합의로 조율하여도 서로의 입장 차로 인하여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정의를 정의하는 것은 어떠한 난제보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이 책을 읽는데 얻어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라는 개념 자체는 정답이 없어 그 의미를 찾는데 헤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면 시대에 따라 말뜻은 바뀌겠지만 그 단어에서 당장 떠오르는 키워드는 혼돈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철학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대학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지혜는 일련의 경험과 책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지금에만 충실하고 내일에 희망을 거는 마음가짐이라면 지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다만 정의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자의 것이기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좀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느꼈다.